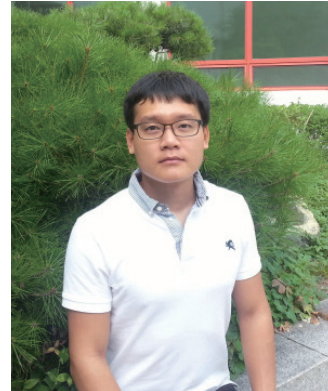


기회와 감사

● 글_ 채기성 ·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연구원



고등과학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계산과학부 연구원 채기성입니다. 이렇게 글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, 저는 미국 뉴욕 주 트로이에 위치한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재료과에서 2015년 5월에 박사학위를 받았고, 같은 해 7월 27일부터 고등과학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트로이는 뉴욕 주의 주도(州都, capital city) 알바니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, 겨울이 길고 추운데다가 눈도 많이 와서 많은 분께 그다지 재미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이 좋고 또 어떤 의미에서 연구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근처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게 알려주세요. 제가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에 온 지는 이제 막 한 달 정도 되어 갑니다. 이사할 때 가져온 짐들은 어느 정도 제 자리를 찾았고, 제 마음도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습니다. 지인들에게 고등과학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것도, 아침마다 잠 자고 있는 아이들을 떼어 놓고 출근 길에 오르는 것도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.

계산과학부 연구원으로서 지낸 지 아직 3주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곳 저곳에서 좋은 연구 활동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멘토 교수님, 동료 연구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,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.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좋은 효과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. 동시에 연구원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넓은 개인 공간과 높은 업무 자유도로 인해 연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정 관념과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, 이런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제가 고등과학원에 연구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기회이고, 이 기회가



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. 출근 길 정문을 지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늘 하리라 한 일들과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. 연구라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, 그렇게 찾은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일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열정을 바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. “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,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”는 말을 증명하듯, 고등과학원의 연구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, 그러나 진지한 자세로 훌륭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유난히 더운 2015년의 여름, 고등과학원 연구원들의 연구 열기에 저도 함께 더위도 잊은 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